

「학위의 기적」에 가려진 시대의 삶
여성노동자들의 꿈과 비애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낸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전순옥

전태일 열사의 누이동생 전순옥(50) 씨에게 2001년 3월 4일은 기념비적인 날로 꼽힌다. 이 날은 노동사회학 연구 12년을 마무리짓는 박사학위 논문(원제《They are not Machines》)을 심사받은 날이면서, 몸소 겪었던 1970년대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외부세계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날이기도 했다.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일단 학생의 논문은 합격”이라는 말을 들은 전씨는 논문의 뼈대가 된 취재원들, 즉 창신동 일대의 여성노동자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어떤 분야나 그렇지만 특히 사회학 논문을 쓸 때는 세 가지 형식을 어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영문으로 8만 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논문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어겼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동의를 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어떤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저 스스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노동시간, 당시 경험 등을 취재하고 그들의 증언을 제출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는 이 학위논문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현장감 있는 다큐멘터리를 닮아 있다. 보고서의 미덕은 한때 봉제공장 노동자였고, 전태일 열사의 한핏줄이기도 한 전순옥 씨 앞에서 숨김 없이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와 이들의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귀기울인 연구자 전씨의 열정에 있다. 전씨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1970년대의 진실을 캐낸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1970년대 고용주의 손에 엄청난 권력이 쥐어졌을 때이며, 진술자는 생활고에 찌들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상경한 여성들부터 이들을 부렸던 남성 노동자, 노동조합활동가 야당정

치인까지, 1970년대의 다양한 군상들이다.

“처음부터 영국유학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고 6개월 어학연수를 하자고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1988년에 일본 노동조합, 1989년에 독일 노동조합의 초청을 받아 그곳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세계화 도래가 멀지 않았고 노동운동도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선 영어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뜻을 품고 영국 워릭대학에 입학한 전씨가 1970년대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논문을 쓰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데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1960년~1970년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되면서부터다.

“경제성장 이면에 가려져 기계처럼 일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요. 무조건 한국의 경제성장을 비판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제3세계가 우리를 모델삼아 경제정책을 세워보자는 논의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 모델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훼손된 삶을 사는지를 그들도 알았으면 했습니다.”

결국 전씨는 유학중 두 번에 걸쳐 한국에 나와 인터뷰와 토론 등을 추진했다. 이 기간만도 7개월에 달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육성을 담으려 했던 이유는 기존의 통계자료(OECD, WORLDBANK 등)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정리돼 있고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자료에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하루 16시간 동안 재봉틀을 돌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묵과돼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봉제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현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더군요.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동대문봉제인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창신동 일대 밀집된 공장이 2,600여 개, 제가 직접 찾아낸 공장만도 500개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15~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질병이 많은 시대이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 일만을 계속해야 하겠지요.”

글로써 진실을 알린 전씨는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에 다가가고자 지난해 ‘참여성노동복지터’(이하 ‘참터’)를 설립했다. 또 8월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제안한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자녀교육 문제에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참 신나는 학교’를 운영하며 여성 노동자 자녀의 방과 후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35명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다.

“참터에서는 창신동 일대의 여성노동자에 관해 연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상점만 있는 것 같지만 건물 지하에는 대부분 봉제공장이 있지요. 예전의 시다들이 여전히 이곳의 시다로 일하고 있는 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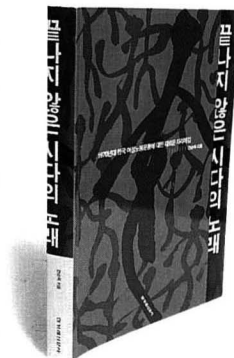
참터는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단체로 앞으로 여성 노동자들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완전한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인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담 도우미 역할로 나서 법률, 의학 등 실질적인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1990년 5월에 영국 메이데이 행사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가 싶어 무척 놀랐지요. 이제 15년이 다 돼 가지만 이 문제에 관한 영국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영국 역시 고용창출이 비정규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MF 지원체제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변하고 있지요. 자살하는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전씨는 이번 책으로 1970년대 기계처럼 일했던 이들의 진실이 알려지고 이 사회에 올바른 ‘노동 개념’과 가치가 뿌리내리길 바랐다.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받은 세 가지 숙제-논문을 서가에 꽂지 말고 반드시 출판을 할 것, 논문에 나온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그들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더 연구할 것, 이 논문을 언젠가 영화로 만들 것-중 한 가지 숙제를 끝낸 그는 “영국의 Ashgate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취재에 응해준 노동자들이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 된 책이 나와 몇 배 더 기쁘다”며 모든 공덕을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앞으로 돌렸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전순옥 지음 | 한겨레신문사 | 400쪽 | 값 15,000원